

“ 기독교인의 품위와 고상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

■ 이종윤 원로목사

16세기 개혁자들은 복음의 본질이 변질, 왜곡 그리고 형태가 손상되었을 때 과감하게 본래의 복음인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성경의 교회 모습보다는 무례하고 천박한 종교로 전락하고 있지 않은가? 남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변두리로 몰아내고 제 주장 세우기에 급급하고 어디서나 최고가 되고 자기 것만 최선이라고 우겨대는 모습을 자신을 포함하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온라인에서 반기독교적, 반예수, 반성경운동이 확산되고 Anti기독교 사랑하는 모임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들의 무례나 무지를 탓하기 전 우리 자신이 개혁의 대상임을 시인해야 한다.

어떻게 고상하고 품격 있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앞에서 신전(Coram Deo)의식을 갖고 사는 이가 고상하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최고의 신을 믿는다면서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자만심에 빠진 이들이나,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온다고 믿는 이가 기독교가 자기만의 종교요 자기만 구원받은 백성이라 주장한다면 그리고 기도의 대상도 무엇을 기도하는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기도하면 무엇이냐 다 들어주신다면 자신의 탐욕 충족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이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행하여 ...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였다. 상대방을 배려해야 고상하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이웃 사랑과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항상 있어야 한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편이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각박하게 대하지 말고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 마음대로 배불리 먹되 그릇에 담지는 말라” 하신대로 너그럽게 여유 있게 이웃을 대접해야 한다. 상대방을 경쟁상대나 부리는 대상으로가 아니고 소망, 기쁨, 자랑의 대상으로 타인을 보아야 한다. 현실에 초연하고 궁극적인 것에 시선을 집중할 때 신앙의 고상함과 품위가 드러나게 된다. 초대교회에도 위선, 이단, 음란, 당짓기, 우상숭배와 같은 죄들이 있었으나 성령이 오신 오순절 이후 배우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로 바뀔수록 품위 있고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표출되었다.

품위 있고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즉 무신론자, 복술자, 창녀, 세리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역사를 일으켰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사랑의 역사를 일으켰다. 무엇보다 죄를 자복하는 통회의 역사와 가치관의 변화로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물질관에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 결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높은 도덕성과 영성 때문에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

품위 있고 고상한 그리스도인은 이상적 삶을 사는 이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지상에 살지만 이방인같이 살되 천국의 시민으로 산다. 천국백성은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다른 삶을 산다 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기독교가 그 질적 독특성 때문에 가졌던 품위와 고상함을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회복하여 성령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원하자.

-한국장로신문 2013년 8월 3일 발채-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오늘 함께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뵙기를 소원합니다.

한편, 코로나 재확산으로 오늘부터 교회 출입구에 발열체크기를 다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 자율적으로 열을 체크하신 후 입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손소독제 사용과 마스크 사용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인사는 목례로 대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사회의 모범이 되고 성도님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유년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29일(금)~31일(주일) 동안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다음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젊은이들로 자라나도록 계속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724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뿌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반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예수를 따르니라 ”

■ 누가복음 5:1-11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무대는 갈릴리 인근 마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마 4:23) 이처럼 갈릴리에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 한 가지가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신 일입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결정적 순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직업의 노동 현장인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나 새 삶을 출발했습니다.

1.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잡은 것이 없는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일했지만 빈손이었습니다. 밤을 지새운 노력이 실패한 날, 무력감에 기분이 가라앉은 날, 바로 그 날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베드로는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일단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되고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 못할 명령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6절)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문제해결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2. 더 큰 은혜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해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데 곧 자기발견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과정 중 첫 관문이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외치는 것은 그가 진정한 영적 자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기적의 고기잡이를 통해 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면서 시작된 변화입니다. 어거스틴은 ‘거룩한 공정이 있어야 거룩한 부정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자기를 보는 눈도 열려서 죄인된 자기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보는 눈이 열린 후 비로소 자기를 발견하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요 죄인 중의 괴수인 자기’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는 이 자기인식에서부터 인생을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가는 길로 이끄시고 그의 삶을 존귀한 자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3.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능력을 구비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을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회개한 사람은 사명적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정권을 장악하고 한 시대를 풍미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를 기억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동족들의 호소에 귀 막고 자신의 안전을 위한 길로 갔다면 그는 잊혀진 배신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도 그 존재의 목적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명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상과 복음을 위한 희생공동체로 만드셨고 우리를 사명자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유충기 장로
II 오전 11시	김익환 목사	서은석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조원영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시 96:9-10...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9(1절)...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7(시 13)...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261(195)...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눅 5:1-11...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헌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예수를 따르니라”...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505(268)...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설교 안용곤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시 106:47-48 인 도 자
 찬 송 251(137) 다 합 께
 기 도 여유현 집사
 찬 송 254(186) 다 합 께
 성 경 출 4:18-26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피 남편” 설 교 자
 * 찬 송 269(211)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 인도, 설교: 조동수 목사

기 도 ... I부: 송재월 권사 II부: 권택숙 권사
 성 경 마 4:18-2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그물을 버려두고”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화2
 설 교 손달익, 장석남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모임

1. 권사 월례회 / 24일(주일) 3부 예배 후 101호

알림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1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후 12시10분
7. 603호 부서 모임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0.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1.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2. 세례식 신청 - 금년도 세번째 세례식인 8월 세례(세례, 입교, 개종, 유아세례)식이 8월 21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세례 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 : 8월 7일(주일)
- 세례 교육 : 8월 14일(주일) 오후 1시 609호
- 세례 문답 : 8월 14일(주일) 오후 2시 609호
*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새가족소개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박상보	1-6	빌립	유명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600명	401명	2,001명	425명	2,348명

2022년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부 서	일 정	장 소	주 제	담당 교역자
유년부	7/23(토)-24(주일)	서울교회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세대! (요일 5:4)	조동수 목사
중등부	7/29(금)-31(주일)	아가페타운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청소년 (빌 2:5)	정기성 전도사
고등부				김예지 전도사
청년부	8/12(금)-13(토)	아가페타운	언약백성으로 살아가기 (출 19:5-6)	안용곤 목사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심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니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서지원	장희원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최유현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눅 5:11)		
수요1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금주의			
수요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성구			